

# 농장경영의 꿈을 이룬다

일년(10.10~11.9)동안 출하한 축종(한우, 육우, 돼지, 계란)의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평가와 실사를 통한 우수농가 선정 및 시상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였다. 신년호 농가탐방에서는 '2011년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돼지부문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봉영농장(제주)의 고영미 농가를 소개하여 고품질의 사양관리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 봉영농장은 -

봉영농장은 2007년 5월 7일 HACCP인증에 이어 2009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양돈분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되었고 2010년 1월에는 친환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인증까지 획득하였다.

농업마이스터대학 양돈학을 전공하고 농장경영이 꿈이었던 고영미 사장은 2002년 5월 10일 모돈 50두 규모로 시작하여 현재 모돈 200두 총두수 2,3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위생적인 고품질의 규격돈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의 식생활향상에 기여하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장의 경영수익을 창출함은 물론 환경친화축산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양돈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 경영방침은 -

무엇보다도 내 가족이 먹는 돼지고기를 생산한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돈육생산 체계 구축과 청결한 돈사(농장) 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축산물 생산에 주력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사양관리와 질병위생관리를 통하여 농장의 생산성 향상과 농식품부 인증을 통하여 양돈농장의 지공심도 함께 높이고 있다.

## 등급판정결과를 살펴보면 -

1등급은 전국평균 3.7%보다 월등하게 높은 28.1%이었으며, A등급도 전국 39.6%보다 20.8% 높은 60.4%의 등급판정결과를 나타냈다.

### 육질등급 판정결과

(기간: 2010. 10. 1 ~ 2011. 9. 30, E등급 제외)

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계(두수)
암	25.0	63.1	11.4	0.6	1,971
거세	31.1	56.1	12.3	0.5	2,050
수	-	-	-	-	0
계	28.1	59.6	11.8	0.5	4,021

### 규격등급 판정결과

(기간: 2010. 10. 1 ~ 2011. 9. 30, E등급 제외)

등급	A	B	C, D	계
두수	2,427	1,019	575	4,021
출현율	60.4%	25.3%	14.3%	100.0%





## 앞으로의 포부 -

중돈, 자돈, 비육돈 성장단계별 사료프로그램 및 농장 맞춤형 비육돈 후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여 품질에서 최고이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돼지고기 생산으로 지역의 양돈산업 발전은 물론 대·외적으로 친환경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 사양관리 포인트

### ◎ 종돈구입

제주특별자치도의 양돈정책 특성상 외부에서 종돈반입을 금지된 상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순종을 구입하여 축산진흥원내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도사업소의 정액으로 100%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후보돈(F1)을 자체생산하고 있으며, Terminal sire로 듀록을 사용(YLD/LYD 3원 교잡종)하여 우수 유전형질에 의한 개량된 돼지를 생산하고 있다.

### ◎ 단계별 사료급여형태

#### ● 자돈

- 분만 후 55일령까지 갓난돼지 사료(2호 2주, 3호 2주), 젖 떼 2주, 육성돈 전기 3주를 급여하며, 완전배합사료로 자유급여
- 이유 후 30일 자돈의 목표체중은 20~23kg이며, 대략 350g정도 일당증체량이 증가 유지
- 농장에서는 적정 온도가 일당증체량 및 사료섭취량, 사료효율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적정온도(28~30℃)에서 점차적으로 1℃씩 내리면서 관리

#### ● 육성돈·비육돈

- 자돈구간이 끝나면(100~120일령) 바로 180±10일령(6개월) 출하시까지 비육 사료를 급여하여 출하
- 농장에서는 사양관리 전구간에서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함은 물론 출하 60일전부터는 비육돈후기사료를 급여

하여 항생제 체내 잔류로 인한 식육의 안전성을 사육단계에서부터 확보

- 고급육 생산에 있어서 최고의 포인트는 비육사료 급여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에 집중함
- 출하전(50~60일) 후기 비육돈 사료를 장기 급여하면 처음에 지방이 형성되어지며, 차후 근육 내 침착이 이루어져 고급육을 생산가능
- 후기 비육돈 사료를 장기 급여하게 되면 사료값이 많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백질이 성장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면 이와 같은 상승요인 감소로 결과적으로 사료 값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짐
- 즉, 후기 비육돈 사료의 장기 급여는 농가의 사료를 절감시키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게 하여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돼지고기를 생산 할 수 있으며, 지방 침착이 잘 형성되어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 가능

※ 종돈관리 사항은 온도를 18~19℃정도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사료효율 및 사료섭취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습도도 60~80%정도로 유지하고 있으며, 급수는 자동 급수기를 이용함은 물론 쇠사슬 장난감을 매달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있다. 돈방당 사육두수도 적정두수로 유지하여 증체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 ● 출하관리

- 비육돈의 목표 출하체중 : 115kg이상